東大新聞

發行人 李 瑄 根
編輯人 鄭 允 武
主幹 宋 赫
編輯部長 李 相 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㉑8131~9
本社直通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獎學규정 大幅 改正

10月 30日 學處長會議 통과

佛敎·一般·特殊로 大別 每學期末에 選拔試驗 實施

○… 본교 장학금금여규정, 장학방침및 특수학장금 지급규정등을전…○
○…년개정, 지난10일 학처장회에서 통과되었다. 본규정은 학학년을…○
○…고취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란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을계…○
○…속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1973년 2학기에 개정된 奬學金 給與規定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이번 새 규정에는 奬學生 總定員은 학생정원의 15% 이상으로 할것을 제4조에 明記하고 宗團추천 장학금과 佛敎美術장학금, 원호장학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종진의 勤勞장학금은 總長장학금으로 改稱했다.

選拔規定은 우등장학금및 별도 조건이 없는 교외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발은 ①장학생 選拔試驗 응시자격은 前學期 성적평균 80점 이상인 者로 한다. (단 學部 在學生 필수과목을 포함한 20학점이상을 취득한 者) ②선발시험은 每學期末試驗終了 후에 실시한다. ③선발시험 과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성적배점은 1백점으로 하며 학업성적 50점 선발시험성적 50점으로 한다. ⑤선발시험에 응시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本規定 第11條3項 (考試奬學金의 施行細則으로 考試奬學規則도 발표되었는데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筆答考査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장학금 지급은 國家考試2차합격자에게 授業料와 期成會費 전액을 면제하며 국가고시 1차및 本校施行 主客觀試驗합격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 本校시행 客觀試驗 합격자는 수업료반액을 면제받는다.

개정된장학규정의奬學金종류금여액은 다음과같다.
▲佛敎奬學金 ▲宗立學校 奬學金(1校一人) ▲徒弟奬學金 ▲宗團추천장학금 ▲佛敎美術장학금 이상 수업료전액지급.
◇一般奬學金
▲新入生장학금=①學部의全校首席合格者(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1년간면제) ②單科大學및 각大學院 수석합격자(博士과정제외)(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면제) ▲학기면제 ▲수석장학금=수업료 전액 ▲우등장학금=수업료반액 ▲子女장학금=수업료전액 ▲總長장학금=수업료일부 ▲원호장학금=수업료일부.
◇特殊장학금
▲공로장학금=음악계사기수업료와 기성회비면제 ▲체육장학금=수업료전액 또는 반액 ▲考試장학금=고시장학금 규칙참조 ▲공무원장학금=수업료반액 ▲가사장학금=기성회비 이내 ▲外國人장학금=별도제정 ▲校外장학금=별도제정.

◇써클指導교수간담회 광경.

써클活動組織化강조

學生指導研 指導敎授 간담회

써클지도교수간담회가 지난6일 학생지도연구소(소장=鄭允武학생처장) 주최로 학생회관 제2회의실에서개최됐다.

鄭允武학생처장, 金溪宗학생과장, 김성배도서관장, 睦禎培불교학생회 지도교수를 비롯한 31개 써클지도교수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鄭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거에는 써클지도교수가 조직화하지 못했던 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점으로보아 朱宗煥 金泳鎬교수등 경제사 전공학자의 연구는 사학자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 주고 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연구방향은 國史學者와 經濟史學者의 협동연구에서 찾아야 할것같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에이어서 崔匡和교수(師大·相談部長)의 「學生相談의 現況과問題性」이라는 論題의 主題發表와 李秉東교수 (農大·새마을部지도교수)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실명이 있었다.

金哲俊敎授는 최근의 그의 著書 「韓國古代政治史研究」의 序文에서 「우리 國史學의 水準은 아직도 우리民族과 社會가 당면한 現實的課題가 너무나 이념 간담회로 써클활동을 조직화하고 좀더지한 연구방향을 國史學者와 經濟史學者의 협동연구에서 찾아야 할것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國史學界가 또하나 당면한 문제점의 하나는 학고한 발굴품의 수집이다.

金哲俊敎授는 최근의 그의 著書 「韓國古代政治史研究」의 序文에서 「우리 國史學의 水準은 아직도 우리民族과 社會가 당면한 現實的課題가 너무나 이념 간담회로 써클활동을 조직화하고 좀더지한 연구방향을 國史學者와 經濟史學者의 협동연구에서 찾아야 할것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國史學界가 또하나 당면한 문제점의 하나는 학고한 발굴품의 수집이다.

學年度 상담학생수는 2백1건이었으나 75學年度 現在 1백39건의 相談이 있었다. 『現在 本校生들은 너무나 한 相談要로 나타났고 이 학생상담자의 갈소이유로 ①學生指導硏究所의기구問題 ②學生指導의 운영과 에산문제 ③카운셀러의 質量的인 문제 ④카운셀러의 敎的 부족 ⑤相談室의 시설·환경造成문제 ⑥奬學相談室 설치등의 여섯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李秉東교수는 새마을運動에 대한 說明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理論的인 뒷받침이 적기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理論的인 뒷받침이 적기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理論的인 뒷받침이 적기때문에

新任理事陣에 期待한다

社說

지난 10월31일 學校法人 東國學院의 正理事 9人이 새로 就任했다. 한편 理事會는 理事長에 尹喜重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작년 6월11일 이래 금번 새로 正理事가 就任할때까지 줄곧 官選理事陣이 학교를 운영하여 왔고 그렇게된緣由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東國學院에 관계하고있는 모든분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가지 事情을 日司日吾할 일이아니거니와 닫지 앞으로 東國學院을 보다 알차게 發展的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新任理事陣이 무엇을 어떻게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바라는 立場에서 몇가지 助言을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東國학원의 建學 理念이 佛敎정신에 있다는 점이다. 대체東國學院의 과거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볼때 佛敎정신과 일치할수 없는 너무많은 부조리현상이 돌재해 있지 않았나 하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自意이건 他意이건간에 學校內에 어떤 이기적요소나 파벌적요소가 도사리고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이든다. 大學이 營利체도 아니고 政治단체도 아닌 만큼 어떠한 이기주의나 偏頗주의도 용납되어서는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佛敎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이 운영된다면 만사는 똑바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학은 民族良心과 人類양심의 보루인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모든 원리들을 파 헤치는 眞理의 터전이다.

덕구나 부처님 정신의 구현을위하여 세워진 大學이라면 佛光의 智慧와 菩薩行 乃至 慈悲가 충일하는 요람이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하거늘 과거의 東國學院의 침체와 不協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간에 안타깝고 슬픈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의 이 受難의 祖國의 현실에서 1600餘年동안 우리民族의 영혼속에 깊이 뿌리박아 土着化된 佛敎精神을 일깨우는 일과함께 불교의 발전이 곧 나라의 平和와 民族의 統一을 기약하는일도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든 東國人은 들은 특히 新任理事陣의 責務가 얼마나 重大한 것인가 하는 것을 되뇌이지 않을수 없다.

진실로 바라건대 이번만은 꼭 國學院이 世界的인 大學으로 發展할 수있는 큰 契機가 되기를 願하며 동시에 그것이 불교중흥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실상 지금까지 學校內外에있어서의 여러가지 不條理現象들이 몇 佛敎人을 자신이나 혹은 東國人自身에 의하여 일으켜진 事態는 點에 留意해야할 것이다. 宗團산하의 大學의 發展없는 佛敎의發展을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늘과 같은 產業化된 近代國家에있어서는 大學이 그 社會의 前衛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大學의 發展地가 許容되는 못에 不條理가 생기는 큰 原因이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制度가 없었다거나 또는 制度를 大學의 理念보다 優位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아니다.

緣由야 어디에 있었던간에 작년의 官選理事任命以前의 사태는 G년을 문제삼만 아니라 몇가지 다른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점착된다. 때문에 制度上의 未備點이 혹시 발견된다면 과감히 수정하고보완해야할 것이며 모든 當事者들이 그 制度의 規範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솔선수범한다면 앞으로는 결코 어떠한 不條理도 일어나지않을 것이다.

세째로 大學은 보다 높은 理想아래에서 계획이 먼저날서 내다보는 위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大學은 學問의 殿堂이라는점이다. 예를 들면 醫科大學이나 藝能系大學의 設立 혹은 캠퍼스의 擴張내지 硏究시설과 같은 것이다.

佛敎界에 적어도 綜合病院은 하나 있어야하며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도 언젠가는 東大에 반드시 醫科大學이 設立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理事長님과 總長님의 遠大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것이로 믿거니와 닫지 하나 疑問해야될 것은 大學의 主體가 硏究者인 敎授와 學生이니만큼 學敎의 모든 시스템은 이 硏究者들을 듭기위한 제로로 集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硏究室과 敎室等의 內部시설의 충실은 물론 圖書의 대폭적인구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元老大德스님들이 新任 理事陣에 大學 참여하신만큼 大乘的인 佛智를 동원하여 大同團結하여 本校가 크게 飛躍發展할 수있는 絶好의 契機가 될것을 全佛敎人및 東國人과 함께 期待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韓國詩의 一次的命題

1

詩가 언어의 한 형태라는 우리들의 기본적관념에 대한 또다른 設問이 可能한 까닭은 무엇일까? 詩란 무엇이냐? 詩는 왜 있느냐? 이러한 詩의 본질이나 詩의 목적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계획하던 과거의 모든 試驗은 지금 다 만은 詩의 本質論이나 目的論을 饒舌처럼 떠들어대기 이전부터 詩가 發生해왔고, 또 아무리 적합한 定義가 可能하다 할지라도 詩의 理解를 위하여서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詩의 存在事實에 그 기능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 詩는 극히 人間을 위한, 人間의 問題에 관한 것이면서도 人間의 생활현실 노력 이상의 靜全體의 포괄적인 意味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의 言語는단순한 記號手段을 넘어선, 역사의 성명자로서 또는 社會의 照應者로서 인간과의 인간과의 관계, 역사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背景을 형성해 주는 한 實體로서 理念으로 향하는 經路를 열어주고, 새로운 發興나 發見의 動力을 媒促시켜 준다.

그런므로, 詩語機能의 一次的意味는 객관적 사물이나 事件을 明示하고 判斷하는 意味의 전수수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일정한사회적, 역사적 관계에서 被成되어진 個個人의 정서나 心理的 交涉으로까지 振動擴大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詩의 言語를 詩의 수단이나 詩의 한 認識方法이라는 從屬的인 의미로 보지않고, 言語形態 그 自體가 바로 詩機能이라는 의미로 解釋하려는 努力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치를 示唆해 주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言語에 의한 人間의 表現方式이 아무리 主觀的이고 獨自的이라 할지라도 客觀的 社會背景에서 오는 言語樣式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대로 表現上의 客觀的 表徵性을 아무리 强調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人間의 心理的 思考作用을 거치지 않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日常言語를 人間接觸의 媒促手段으로 삼고, 독같은 日常言語를 詩의 言語로 삼으면서도, 詩語機能을 한 獨自的 實體로 파악하려는 데는 詩학의 言語의 詩안의 言語사이에는 매우 큰 言語機能의 本質을 갖는다.

言語의 情緖的 의미뿐만 아니라, 言外의 의미나 感情價値가 그렇고 또 詩語나 그 文章體系도 염격한 文法學이나 語學的 체계에 구애되지 않고, 오히려 的체계나 과거의 認識體系를 파괴하면서 詩의 効能性을 발휘하기도 한다.

詩에 있어서까지도 言語의 과학적 嚴密性을 강조한 I.A.Richards는 詩의 언어를 「假陳述」이라고 규정했지만, 이점 詩語機能이나 그 効驗性으로 볼때 日常語機能과는 전연 다른 언어형태의 二元體系를 설명할 수있다는 것이다.

첫째, 日常語가 科學的 엄밀성을 요구한다면 詩語는 정서적 描象性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日常語가 客觀的 事物과 事件을 지시하는 記號로 그 事件과 事物에 대한 科學的 解明이나 確認이면되지만, 詩語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필요하다. 물론 日常語에도 假說이 있을수 있지만, 이 假說은 이미 세워진 體系와의 調和나 필요불가결의 최소한의 형식이 서로 다름 文化圈의 차이이기도 하고, 같은 民族 社會的 文化圈이라 할지라도 現代 生活의 형태에서 생기는 차이이기도하다. 가령, 西洋에서는 哲學이나 宗敎보다는 科學的 認識體系의 발달이 따라 言語機能의 엄밀성을 강조해 왔다고 본다면, 東洋은 非直觀的 思惟體系의 발달로 言語機能에서 나타낸 言語意의 蕩然性을 들 것이다.

東西文化의 이러한 특質體系는 言語認識이나 詩의 認識方法 또는 思考方式이나 判斷의 方法 認識體系나 情緖模式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점격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言語는 社會의 네 경을 형성하고, 한 민족의 文化傳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그것을 民族文化의 獨自性이 되는 文化傳統의 차이는 意識構造나 思考方式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民族文化의 형성이 서로 다름 文化圈의 차이이기도 하고, 같은 民族 社會的 文化圈이라 할지라도 現代 生活의 형태에서 생기는 차이이기도하다.

가령, 西洋에서는 哲學이나 宗敎보다는 科學的 認識體系의 발달이 따라 言語機能의 엄밀성을 강조해 왔다고 본다면, 東洋은 非直觀的 思惟體系의 발달로 言語機能에서 나타낸 言語意의 蕩然性을 들 것이다.

東西文化의 이러한 특質體系는 言語認識이나 詩의 認識方法 또는 思考方式이나 判斷의方法 認識의 方式의 차이로 하고 그 결과 言語의 形態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점격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言語의 本質은 社會的 現象인 것이다. 所産이요 自發的인 선택이나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民族의 역사 문화 전통을 형성하고 주는 한 그 언어는 사실이나 사회성의 상대적인 변화나 발전이 가져다 주는 文化 의식이며 한 時代, 한 사회의 言語는 그 시대 사회의 식방법의 기준이 되어 준다. 「人間의 感情이란 간직한 것이 계속에서 이미 승화된 인식의 세계에서 넋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現實의 世界와 그 세계의 거리를 調整하고, 흔히 있는 잊혀지기 쉬운 價値있는 記憶을 되찾기 위하여 인간 눈물이 있어서는 우리가 웃고 즐거울 때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思考나 情緖의 관념은 이 우리 눈 구름을 잡으려고 代詩의 領域으로 虛無的 無常感을 내관하면서 그 체념이나 虛無感들이 현대 시의 주정도 없어서 現代詩의 反撥 期待 强調 高度的인 言語 認識 方法 의 李朝人의 意識構造 의 의식구조를 부정적 骨格으로 만들게 語 의 의식구조를 이악같은 古詩歌的 성격이 단의 반성이나 수정도 없이 現實 의 領域으로 흡연들어서 現實 의 체념이나 虛無 의 無常感을 이 우리 詩 의 시 가 미래의 있을수 없지만) 는 詩 (실제로는 의 미래의 있을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詩에 있어서는 非詩일수밖에

Tom Jones 헨리·필딩

世界名著散策

特有의 喜劇性, 手法 참신
健康한 精神 追求
낭랑한 「青春의 叙事詩」

<文理大英文科敎授>

朴 珍 錫

18세기 初頭 英國文壇은 쌍벽을 이루는 二大小說家를 배출시켰다. 거의 때를 같이해서 英國文學史上에 雄壯한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雄姿를 가리기가 難堪한 처지가 되리만큼 서로가 앞다퉈 불을 벌였다. 從來의 얕팍한 로맨스에 壓倒를 느껴, 보다 새롭고 寫實的인 것을 待望하고있던 독자들의 興望에 迎合하게끔 倫理的 敎訓이나 도덕성을 바탕으로삼고 이른바 sentiment를 根源으로하는 實感豊의 小說 Pamela (1740)로써 洛陽의 紙價를 높이게한 작가는 바로 Samuel Richardson(1689~1761) 이며, 반면 奔放하며 僞善을 미워하고 美辭麗句를 羅列함으로써 교훈적인 道德性을 소설속에 投與하기보다는 惡의 眞相을 暴露해버리는 편이 차라리 嫌風的인 면에서는 幼果가 있다고 믿어 感傷과 不自然性과 道學風을 排擊한 사람은 다름아닌 Henry Fielding(1707~1754) 이었다.

前者를 追從하는 一派의 작가가 생기리만큼 큰 영향이 있었지만 後者는 이름바 「a comic poem in prose」를 創造해서 英國小說史上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해 놓았다. 이러한 試圖를 그 작신이 「a new province」라고 呼稱한 것처럼 異彩를 띠었던 것은 사실이며 Austen, Dickens, Thacheray, G. Eliot, Belloow, Barth, Maugham 等의 作家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Fielding의 그의 技巧를 어해하거나 그의 특이성을 발견함 했어도 嗜好에 맞지 않거나해서 同時代의 批評家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일찌기 Somerset Maugham은 그의 著書 「Ten Novels and Their Authors」 속에서 筆頭에다 Fielding의 작품 Tom Jones를 내세워 놓고 있다. 序列을 부置하더라도 적어도 世界의 十大小說中에 엄연한 위치를 占하고있는것만은 부인 못할 事實인 것이다. 참고로 그가 선정하여 해설한 名著別로 소개하면 英國에서 Tom Jones, David Copperfield, Pride and Prejudice, Wuthering Height, Brothers Karamazov, War and Peace, 프랑스에서 Le Rouge et leNoir, Le Pere Goriot, Madam Bovary,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美國의 Moby Dick이다.

어쩐지 이 作品은 美國의 大家인 작가가 40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압축시키고 雜多한 동장인물을 알뜰케 하여 人間의 생활과 생활詩」이며 그 技巧上의 관점에서나 또 작품속에 담겨있는 사상상의 관점에서보 이 작가자신의 最大傑作일 뿐만 아니라 英文學上의 一大傑篇임에는 틀림이 없다. 英國의 작가 Auldus Huxley는 이 작품을 가리켜 『人生의 「全面的 眞實」에 육박하는 巨作』이라했고 그리이스의 詩聖Homeros의 작품과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現代의 屈指의 二大作家가 意見을 같이하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서라도 이 한 篇의 작품의 眞面目은 歷然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작품이 2백년전에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들 눈에는 다소 익숙하지 못한데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대에 불만소 영국의 19세기 소설과 대비해 볼 때 오히려 이작가 나름으로서의 新鮮한점을 갖추고 시야가 넓으며 여유있는 인생관조의 태도, 그리고 작가의 정신이 건강한점등 가히 18세기 영국소설을 대표관하여서 이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작품의 길이가 비록 2백년전에 발표되었고 해도 例를들어 염정나라 (18권208장) Richardson의 작품들처럼 길고 지루하지 않으며 관건이 없는점을 볼수가 있다. 이유를찾자면 첫째 이작가의 「인간을 보는눈」이 매우 정확하며 관건이 있다는점을 들수가 있다. 제1장에서 그가 문학작품을 料理솜씨에 견주어 설명하면서 Provision of the feast is human nature (人間性) 한 가지뿐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現代의 屈指의 二大作家가 意見을 같이하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서라도 이 한 篇의 작품의 眞面目은 歷然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작품이 2백년전에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들 눈에는 다소 익숙하지 못한데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대에 불만소 영국의 19세기 소설과 대비해 볼 때 오히려 이작가 나름으로서의 新鮮한점을 갖추고 시야가 넓으며 여유있는 인생관조의 태도, 그리고 작가의 정신이 건강한점등 가히 18세기 영국소설을 대표관하여서 이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작품의 길이가 비록 2백년전에 발표되었고 해도 例를들어 염정나라 (18권208장) Richardson의 작품들처럼 길고 지루하지 않으며 관건이 없는점을 볼수가 있다. 제1장에서 그가 문학작품을 料理솜씨에 견주어 설명하면서 Provision of the feast is human nature (人間性) 한 가지뿐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現代의 屈指의 二大作家가 意見을 같이하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서라도 이 한 篇의 작품의 眞面目은 歷然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작품은 2백년전에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들 눈에는 다소 익숙하지 못한데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대에 불만소 영국의 19세기 소설과 대비해 볼 때 오히려 이작가 나름으로서의 新鮮한점을 갖추고 시야가 넓으며 여유있는 인생관조의 태도, 그리고 작가의 정

종래의 感傷과 不自然性에서 탈피
18世紀 英國小說을 代表

第十章 一章에서 「本人은 絶對的인 善人이라는지 絶對的인 惡人이라는 도대체 이 世上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絶物같은 것들을 애당초 쓰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럼 部類의 書籍은 엄마든지 있기때문에 所望이라면 그런 것을 찾으지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라는 觀點의 內容을 敍述해 놓고있다. 그의 이 말은 자수 引用되는 Maugham의 The Summing Up 第十七章속의 有名한 句節과 同質의 것이다고 하다. 「나는 Cynical한 사람이라 불미 確保해 놓고 李寶龜, 安容賢 敎授등 37名의 學者가 參與하고 있는 影印事業에 參與하고 있는 高麗大藏經은 雕造의 動機와 板刻의 技術과 藝術性, 그리고 完成度 內容으로하여 世界的인 敎文化의 極致오 護國精神의 結晶 및 點을 고려할 때 그 保存 및 及은 民族的 觀點이 아닐수없다.

가장 貴重한 大藏經의 기록
佛敎文化 發展에 이바지
高麗大藏經의 價値宣揚
—高麗大藏經 影印本 完刊사업

世界的인 高麗大藏經의 影印本 刊行事業이 太敎 부설 불교문화 추진되고 經院에 의해 國別順序에 따라 48卷으로 完刊을 서둘고 있는 이 刊行사업은 佛敎振興과 國佛敎 精神의 진작및 國寶의 永久保存에 그 目的이 있다.

現在 淮印事에 속하되어 있는 高麗大藏(國寶32號)에는 總 1藏 5백11種의 佛典이 포함 되어 있다. 原本의 總卷數는 6藏 8천8백5卷이며, 經板의 수는 만1천137枚에 달한다.

1251年(高麗高宗38年)에 完成된 이 高麗大藏經은 經板의 앞뒤로 새겨져 있어 실제적으로는 16萬장이 되며 8萬4千의 法門이 收錄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量의 大藏經을 影印 完刊하기 위해 本社에서는 今年 4月 刊行委員會(委員長=李寶根총장)를 結成하고 이미 寫眞撮影廣告 影印作業을위한 工場을 設立, 지금까지 活用해 오고있다.

76年4月末까지 完刊에 소요되는 예산 1억2천만원까지도 이 고유번호의 부여로 同本異譯經略. 異譯同名經典을 구분호수 있으며 「다시」 번호는 파생된 다른 독립경전과의 관련성을 나타 하는데 도움이 된다. 판독 이어려움부분은 활자를전사하여 판본과 구별되도록교정을하고있다. 해제색인본(第48卷)에는 고려대장경관 주조 역사및 현행 경판의 경관 주조에 관한 총설적인 解題와 고려 대장경 全經의 著, 譯者, 經의異名·略名·別名·藏名, 고려내용의 역대 번역 및 간행 경위 등 전반에 걸쳐 간명하게 수록하고 색인에는 書名의 색인, 역자자의 색인, 고려내용의 색인 을 포함하게 된다. 고려대장경의 16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완성된 高麗大藏이 近代 과학기술 응용화, 異本·類本, 註疏, 현대어 역

精神力과 成功力

<朴浚圭著 國民書館刊·값580원>

이 책은 繁榮과 자기성장의 行動學이라 할수있겠다.

著者는 深層心理의 啓發을 통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은 선택하거나 決意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바라는 인품이나 성격을 마음대로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이러한 選擇力 뿐만 아니라 그 選擇한 線에 따라서 行動할수 있는 能力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創造的思考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갖는다.

이책을 再讀 三讀하며는 精神力의 위력을 터득함은물론, 이 책에 넘치흐르는 정신력의 活用法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어져 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原色 家庭園藝

<明星出版社·값 2,500원>

현대의 바쁜 생활에서 귀중한 틈을 얻어 취미생활을 살려 보려는 애호가를 위하여손쉬운 길잡이로 엮은 것이 이 책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화초와 화목 150여종을 골라 계절별 단위로 구분하여원색분문에 수록하였으며, 차례로 그꽃을 즐기는 방법과 기본적인 재배법및 주의를 요하는포인트를 지적하였다. 후편의 단색분문에는 실제로 화초를가꾸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이에 응용할수 있도록 화초 원예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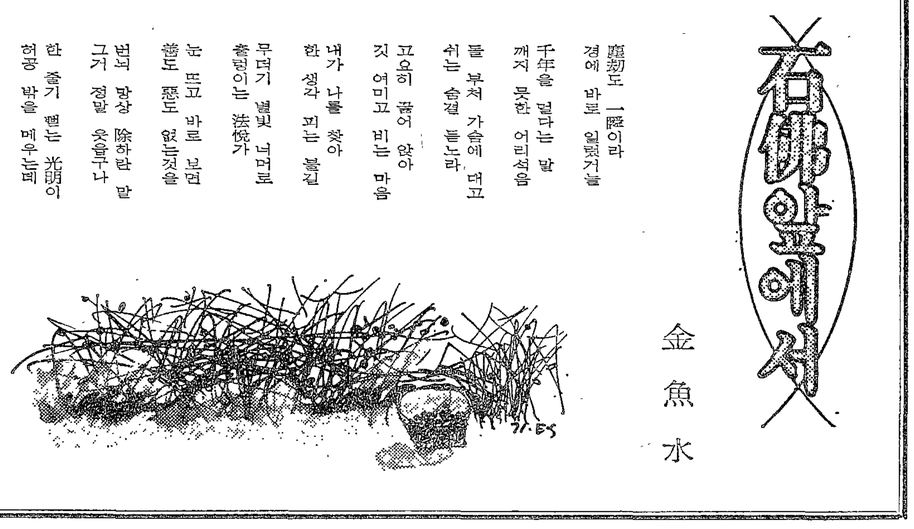
金日成列傳

<李命英著 新文化社·398P 값 1,500원>

이 책은 그 傳說과 神話의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서이다. 필자는 그序文에서『당초의 연구목표는 옛「김일성」장군의實在여부와 그정체를 밝히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김일성」이란 이름을 가진 많은활동가들이 여러 年代에 걸쳐서 여러곳에서 여러가지의 기록에 부딪쳤다. 그래서 옛「김일성」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평양의「金日成」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역사의 진실을 파악할수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이러한 一聯의 사실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명을시도하고 있다』라고 술회하고있다.

本書「金日成列傳」은 옛「김일성장군」의 정체와 활약상을 규명하고나아가서1931년의 9·18事變後의 在滿 中共黨의 유격대속에 있었던 第6師長 金日成과 그 承名者였던 第2方面軍長 金日成의 정체와 활동의 실제를밝히며 동시에 자칭「金日成장군」金聖柱의 인생행로를 살삼이 파헤치는것을 즐거리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말자화된 기록에만 의존치 아니하고「歷史的 現場」을 檢證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증인을 찾아다녔던 수년간의 정력적인 결음이 갖다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가짜 金日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中央圖書館 提供>



塵刹도 一瞬이라
경에 말로 일렀거늘
千年을 멀다는 말
깨지 못한 어리석음
들 부쳐 가슴에 대고
쉬는 숨결 듣노라
고요히 꿇어 앉아
짓 여미고 비는 마음
내가 나를 찾아
한 생각 피는 불길
무덤기 별빛 너머로
흩덮이는 法悅가
눈 뜨고 바로 보면
善도 惡도 없는것을
번뇌 망상 除하란 말
그거 정말 웃을구나
한 줄기 뻗는 光明이
허공 밖을 메우는데

<同門·詩人>

佛

김학봉

보통 弗이란 밝대편으로 굽은 두개의 선을십로 옮아면 모양으로 양립할 수 없는이질적인두개념을 결속시키는 뜻에서「아니다」(不定)를뜻한다。새로 생각해 보면 불(弗)과 두개의 화살(||)을 합친 會意文字인 弗은 활과 화살이라는사회성을 규정짓는 개념이므로 한 개의 화살은쏘아도 무방하다는 선천적 유말이 제재한 의미의한 화살과 활·화살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감에서 다시「아니다」가추론된다。따라서 佛은「사람이어긴(佛) 사람(人)」으로서 두 화살을 결속시키는 실이나 줄의 操作능력을 포함한다。

깨달음을 찾으려는 무리에 비로소 끼어들은 나르서는 그 두개의 화살중에서 한개의 화살을시행 착오로 인정하여 시위를 당기면, 다른 화살은 활과 화살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않도록 지니고 있으면서, 무엇을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단지 시·공간적 움직임으로서의 화살이 한개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참(眞)이란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과 날으는 화살과 사이 또 날으는 화살과 활·화살의 사이를 메우고 있는 시공에 대한인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으로는 형광등이 60번쯤 번갈아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듯이 끊어진 순간을 이어진 영원으로 생각했고 공간적인 단위에서 보면 넓은 운동장의 들 하나를 드는 몇개의 콩과 그 들을 視覺의 확산작용으로 끊어진 점을 이어진 형체로 본다—요컨대, 눈앞의 착은것만을 보고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것을 확대추론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므로, 않은 法界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밝혀지지않은 눈을 갖추어야 한다。

봄이 오고 갈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봄이 섬에 여름이 늘고 봄이 남음에 여름이 부풀리고

상상의 여행을 계속하면 봄은 그림자를 두고 떠날에 여름은 그곳에 고스란히 걸치다。

<佛敎大 佛敎科>

敎養學部 讀書공부 入賞作

牧民心書

全國篇, 治者의 道理등 說破

民意에 의한 法令主張은 現代와 一致된 先見

中世行政에 革命的 指針書로

양기형(慶林大 林學科)

○…茶山 丁若鏞은 1762年(영조38年) 음력 6月16日 경기도 광…○
○…주군 초부면 마현, 즉 지금의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부친 나주 丁氏 재원, 모친 해남 尹氏와의 4男으로 出生…○
○…했다. 初字는 歸農, 冠名은 若鏞, 頌甫, 號는 三眉, 茶山, …○
○…堂號는 與猶堂이고, 天主敎名은 요안이다. 22세때 세자책봉…○
○…증광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그러나 29세때에는반…○
○…대파의 모략으로 유배를 겪었고, 다시 33세때에는 경기지…○
○…방 암행어사를 지내는등 계속 관직에 있다가 1801년 (40…○
○…세) 에 황사영 事件으로 전라도 강진현에 유배되였으며, …○
○…여기서 18년동안 많은 저작을 이루어냈것이다. 경세유표, …○
○…목민심서, 흠흠심서등의 代表作의에 많은 저작을 남긴 茶…○
○…山은 1836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떠났다. …○

그는 牧民心書의 머릿말에서『오늘날의 사목들이 오직 이익을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들어 진구렁속에 쓸을 이어 가득함폐도 사목하는 者들은 바야흐로 아름다운 옷과 음식에 살이 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 전제하고,『나는 선친이 성조의 祿을 먹는 地方官으로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였고, 우리나라 역사, 자전, 제서를 가지고 옛날 사목들의 목민한자취를 찾아서 이를 엮어낸다』고 집필하는 경위나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가 목민관으로서 혹은 암행어사로서 당시의 극도로 피폐된 농민들의 처절한 궁핍상과 지방행정상의 부패, 난맥상을 직접보고 느끼였도 편찬의 하나의 동기가 되였음을 엿볼수도있다。

본인이 이 서적을 읽게된건박학다식한 茶山의 사상과 저서가 초등교과서부터 많이 소개됨을보고 그의 사상을 보다 폭넓게음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접하게된것이다。

牧民이란 養民, 또는 治民을의미한다。『백성을 소나 말처럼기르며 다스린다』는 뜻이다。또한 心書라 함은『목민할 마음관이있지, 몸소 실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름 했다』고 茶山역시 당시의 조정에 울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제1편 부임 6조에서는『관리는 청렴해야하며 인심을 얻기위해서는 절약해야 한다』는 등의 관리생활의 어려움을 밝히고, 목민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논하고 제시했다。또한 직업의식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제2편 율기 6조에서는 자기의 행동을 몸소 규제하는 규범을 율기라 정의하고 율기 6조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방관이였던 원 또는 수령이 지켜야할 태도등을 밝히고있다。

제3편 봉공 6조는 일반적인행정사무에 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물론 당시의 행정조직과 지금과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오늘의 지방공무원에게 그대로 들어 맞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그 배후의 근본정신은 오늘날에도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제4편 애민 6조는 노인, 어린이, 궁핍자, 병자등 재난을 겪고 있는 백성에 대해서 목민관이어떠한 정신자세로서 처리해야 하는가를 고사와 실례를 들어 가면서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국민의 후생복지를 위한 治者의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제5편 이전 6조는 오늘날의개념과 비교해 볼때 인사관리분야에 해당된다。수령이 향리나 아전을 다스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있다。

제6편호전 6조에서는 전정, 세법, 호적, 부역, 권농분야에대하여 논하고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에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제7편 예전 6조에서는 제사, 빈객, 교인, 교학진흥, 영재의 육성등에 대해 論述하고 이런한의례에 대하는 목민관의 최선의성의를 다해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제8편 병전 6조에서는 병역문제, 병졸훈련, 군장비, 무예의권장 변의진압, 의천시의대비등광범위한 군사문제에대해 언급하고있다。당시의 피폐된 군사행정을통렬히비난하고악한능민의 보호와군사정책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라도 평등 실례를 들고 설파하였는데 특히 일치의 민방위론을 피력한점에서 탁견이라 아니할수 없다。

제9편 공전 6조에서는 산업개발의 행정문제를 다루고 있다。즉 지방관으로서 치산·치수정책과 보수와 환경미화, 도로보수, 개설공작등의 옥설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노동분업과 전문화를 주장하고 수월성측조시 기중기등의 과학기기를 이용 노력과 금전을 절약한 점은 높이평가된다 하겠다。

제10편 형전 6조에서는 소송, 재판, 형벌, 폭력등을 처리함에백성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야하며 고문금지등의 인신보호율과 미신 배척등을 주장 소견은 투드러져 당시 조정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官學의거성인 茶山은 물론 경세제민과 실사구시의 사상에 철저하면서도 유교의 근본이 되는 修治己人의 정신에서 德治를 숭상했고 官의 입장에서보다 民의 입장에 서서 관의 부정 부패를 폭로 고발하고 탄핵 경계한 것은 茶山이 얼마나 서민적이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茶山의 牧民心書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행정의 이론을 전개시켰다기 보다는 실은 당시의 행정관리의 모순을 지적, 폭로한 것이 위주가 된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상의 부패, 난맥상을 직접보고 느끼였도 편찬의 하나의 동기가 되였음을 엿볼수도있다。

본인이 이 서적을 읽게된건박학다식한 茶山의 사상과 저서가 초등교과서부터 많이 소개됨을보고 그의 사상을 보다 폭넓게음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접하게된것이다。

牧民이란 養民, 또는 治民을의미한다。『백성을 소나 말처럼기르며 다스린다』는 뜻이다。또한 心書라 함은『목민할 마음관이있지, 몸소 실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름 했다』고 茶山역시 당시의 조정에 울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제1편 부임 6조에서는『관리는 청렴해야하며 인심을 얻기위해서는 절약해야 한다』는 등의 관리생활의 어려움을 밝히고, 목민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논하고 제시했다。또한 직업의식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제2편 율기 6조에서는 자기의 행동을 몸소 규제하는 규범을 율기라 정의하고 율기 6조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방관이였던 원 또는 수령이 지켜야할 태도등을 밝히고있다。

제3편 봉공 6조는 일반적인행정사무에 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물론 당시의 행정조직과 지금과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오늘의 지방공무원에게 그대로 들어 맞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그 배후의 근본정신은 오늘날에도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제4편 애민 6조는 노인, 어린이, 궁핍자, 병자등 재난을 겪고 있는 백성에 대해서 목민관이어떠한 정신자세로서 처리해야 하는가를 고사와 실례를 들어 가면서 말해주고 있다。이것은 국민의 후생복지를 위한 治者의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제5편 이전 6조는 오늘날의개념과 비교해 볼때 인사관리분야에 해당된다。수령이 향리나 아전을 다스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있다。

제6편호전 6조에서는 전정, 세법, 호적, 부역, 권농분야에대하여 논하고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에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제7편 예전 6조에서는 제사, 빈객, 교인, 교학진흥, 영재의 육성등에 대해 論述하고 이런한의례에 대하는 목민관의 최선의성의를 다해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제8편 병전 6조에서는 병역문제, 병졸훈련, 군장비, 무예의권장 변의진압, 의천시의대비등광범위한 군사문제에대해 언급하고있다。당시의 피폐된 군사행정을통렬히비난하고악한능민의 보호와군사정책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라도 평등 실례를 들고 설파하였는데 특히 일치의 민방위론을 피력한점에서 탁견이라 아니할수 없다。

제10편 형전 6조에서는 소송, 재판, 형벌, 폭력등을 처리함에백성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야하며 고문금지등의 인신보호율과 미신 배척등을 주장

제11편 진황 6조에서는 흉년대책, 재해 예방의 권장, 옹달처치및 난민구제책, 구호기관의 위영등에대해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2편 해관편에서는 일기를마치고 비속을 그만들때 재를 탐내거나 공사의 사무를 미결하여 인정이 날지 않도록 청렴 하고 말달랍한 기분으로 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이상에서 단편적이나마 네용을 살펴보았다。茶山은 목민관으로서 지켜야할 올바른 도리를 낱낱이 밝혀 설파하였는데 특히 일치의 민방위론을 피력한점에서